

시사원정대 NIE 2022-5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가심비'의 의미를 알고 이와 관련된 소비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활동 초점	-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영화계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가심비'와 '가성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소비 경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8
펼치기	-리딩북(별책부록) 6~11 맞춤칼럼 초급 - 아카데미, 폭행과 수어	- 아카데미 내 인식 변화 - 문단별 핵심 문장 파악	25
	- 58~61 키워드가 머니 - 가심비가 뭐니?	- 가심비의 개념 및 적용 사례 - 가치 소비와 미닝아웃	25
	- 82~85 화제의 Item - 앓, 저번에 왔던 그 손님! 저는 다 기억한다구요	-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가심비에 해당하는 소비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7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2주		
학습 목표	가심비'의 의미를 알고 이와 관련된 소비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활동 초점	-'가심비'와 '가성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소비 경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58~61 키워드가 머니 - 가심비가 뭐니?	- 가심비의 개념 및 적용 사례 - 가치 소비와 미닝아웃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가심비에 해당하는 소비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2

맞춤칼럼 초급

아카데미, 폭행과 수어

<어휘 UP>

중계: 방송국 밖에서의 상황을 방송국이 중간에서 연결하게 방송하는 일.

반전: 상황이 뒤바뀜.

유색인종: 백색 인종을 제외한 모든 인종.

자제력: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

당국: 어떤 일을 직접 맡아 하는 기관.

행사하다: 행동하거나 어떤 짓을 함.

풍자: 사실을 과장, 왜곡하거나 비꼬아 표현해 웃음을 유발함.

근육: 참기 힘든 일.

<발문>

1.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보여주는 영화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배경을 사회적 흐름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자.
2. 내가 아카데미상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종류의 작품에 상을 주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차별·혐오 모두 깨는 아카데미...진화의 시작은?

제 94 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윌 스미스의 '급발진 폭력 사태'로 영망이 돼버렸지만,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AMPAS)가 현재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진보와 혁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영화 '코다'의 작품상 수상이었다. 아카데미는 애플 TV+ 오리지널 영화로 청각장애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코다'에 최고상을

주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았다.

하나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식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를 고름으로써 극장용 영화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OTT) 영화가 완전하게 주류 영화계에 진입했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는 인종·성(性) 차별 등 문제로 못매를 맞고 보이콧 사태를 맞닥뜨린 골근 글로벌, OTT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는 폐쇄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인 칸국제영화제와 비교할 때 아카데미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 변화에 발맞춰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카데미의 이같은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아카데미는 10여년 전부터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건 문화·예술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 이를 테면 성(性)·인종·국적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다. 그 시작은 사실상 2010 년 82 회 시상식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가장 강력한 작품상 후보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였다. '아바타'는 역사적인 흥행 기록(총 매출 28 억 5000 만 달러 전 세계 역대 1 위)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작품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캐스린 비글로의 '허트 로커' 손을 들어줌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감독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는 역사가 탄생했다(비글로와 캐머런은 한 때 부부였다).

'허트 로커'가 뛰어난 영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아바타'가 기존의 아카데미의 성향과 더 잘맞는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으로 볼 만한 수상 결과였다. '허트 로커'는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를 그려냈는데, 이는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피로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격의 2010 년 이후 3 년을 조용히 보내 아카데미는 2014 년 85 회 시상식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역대 최초로 흑인 감독(스티브 맥퀸)이 만든 영화('노예 12 년')에 작품상을 준 것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미국 흑인 노예에 관한 이야기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종 차별에 대한 고발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 아카데미는 이와 함께 감독상을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에게 줌으로써 멕시코 출신 감독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도 함께 세웠다. 2010 년에 성 장벽을 무너뜨렸다면, 2014 년엔 인종 장벽을 허물었다고 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카데미는 이듬해 시상식에서 역시 멕시코 출신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에 작품상을 줘 역대 최초로 멕시코 감독의 영화가 최고상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 아카데미는 작품상과 감독상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수상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2016 년 88 회 시상식 때 완성도는 높았으나 존재감이 약했던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작품상을 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열망을 담았다면(이 영화는 정론직필을 담은 기자 영화였다), 그 다음 해엔 흑인 감독이 만든 흑인 성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 '문라이트'에 작품상을 줬다. 이번엔 인종을 넘어서 성소수자까지 끌어안은 것이다.

이런 기조는 2018 년 90 회, 2019 년 91 회 시상식에서도 이어졌다. 90 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받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셰이프 오브 워터'는 괴물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여성·노인·장애인·흑인·성소수자의 연대를 이야기했고, 91 회 시상식의 작품상 수상작 '그린 북'은 흑인 성소수자 피아니스트와 이탈리아계 이민자 남성의 우정을 그린 영화였다. 또 감독상은 넷플릭스 영화 '로마'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에게 줘 OTT 영화에도 문을 열었다.

2020 년 시상식은 아카데미가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연 행사였다. 오직 한국 배우와 스태프들과 함께 한국 연출가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준 것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처음으로, 이 사건은 아카데미가 아메리카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포용한다는 걸 상징하는 수상 결과였다. 아카데미는 이듬해 또

한 번 아시아를 택했다. 중국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만든 영화 '노매드랜드'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준 것이다. 동시에 자오 감독은 역대 두 번째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받은 여성 감독이 됐다.

이해 올해 시상식에선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OTT 영화 '코다'에 작품상을 안김으로써 또 아카데미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우조연상 시상에 나선 배우 윤여정이 수어(手語)로 수상자를 발표하고 축하를 건네는 모습은 올해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뉴시스 2022-03-30]

키워드가 머니

가심비가 뭐니?

<어휘 UP>

가심비: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가성비'에서 파생된 신조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신이 만족스러운 물건을 사는 소비 경향.

품질: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신드롬: 어떤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현상.

웃돈: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

가치소비: 공익적으로 좋은 목적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

매출: 물건을 내다 파는 일.

미닝아웃: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

<발문>

1. '가심비'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사람들이 가심비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가치소비'와 '미닝아웃'의 차이점을 알고 일상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신경 꺼, 내가 좋아서 쓰는 거야"

직장인 이한경(34)씨가 휴가를 보내는 방식은 두 가지다. 긴 휴가 때는 해외로 나가고 짧은 휴가 때는 국내 고급 호텔로 향한다. 돈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0년 간 회사를 다니며 모아둔 돈이 적지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서 부담도 없다. 보고싶은 걸 보고 먹고싶은 걸 먹고 돌아와야 일도 잘 된다. 이씨는 "돈 쓰려고 일한다"고 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은 그리 아깝지 않다"고도 했다.

직장인 오진경(27·여)씨 가방에는 항상 텀블러가 있다. 올해 초부터 어딜 가도 가지고 다닌다. 환경 관련 각종 다큐멘터리 영화와 기사, 유튜브 영상 등을 우연히 접한 뒤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달 음식을 먹는데 그때마다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등은 빼달라고 요청한다. "유난 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활이 됐어요. 남한테 강요는 안 해요. 제가 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가치 소비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 세대)가 돈을 쓰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에 지갑을 연다는 의미다. 가치 소비라고 모두 같지 않다. 내 행복을 위한 일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개인적 가치 소비, 내 소비의 일부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일과 결합하는 건 사회적 가치 소비로 부를 수 있다. 이한경·오진경씨는 모두 가치 소비를 했는데, 이씨의 방식은 전자에 가깝고 오씨의 방식은 후자에 가깝다.

나를 위해, 내가 중요시 하는 것에 돈 쓴다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e커머스 업체 이베이코리아는 올해 쇼핑 키워드를 '홀로'로 정했다. '홀로'와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를 합친 말이다. 1인 중심 경제 활동과 현재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가 밀레니얼 세대 주요 소비 행태로 자리잡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자기애가 강하고, 가치지향적이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곧바로 소비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G마켓이 판매한 여행 상품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체류 기간도 긴 유럽여행 상품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많이 팔렸다. 옥션에서는 페이크 퍼(fur) 제품이 2018년보다 3배 이상 더 팔렸다. 이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동물 보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캥스도 즐길 줄 알고 배낭여행도 갈 줄 안다

최근 유통업계가 상품 구색을 초저가 또는 최고급으로 양극단으로 구성하게 된 것도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 소비 성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어중간한 돈을 쓰기보다는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며 철저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쓸 때는 무리해서라도 쓰며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생필품 등은 각종 검색을 통해 가장 싸게 사야 만족하면서도 명품 등을 사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20대 명품 매출은 2018년보다 신세계백화점 약 27%, 현대백화점은 약 30% 늘었다.

호캉스(호텔+바캉스) 수요 증가도 같은 맥락이다. 비싼 값을 하기만 한다면 호텔에서 하루 이틀 묵는 데 거리낌 없는 게 밀레니얼 세대다. 데일리호텔 분석 결과 지난해 특급 호텔 투숙 매출은 전년보다 26% 늘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 세대가 흥미로운 건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잘 줄도 알지만, 반대로 저렴한 배낭 여행의 맛도 안다는 점"이라고 했다.

친환경 아니면 쓰지 않겠다

유통-제조업계가 앞다퉈 친환경을 내세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포장재까지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것도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한 소비 트렌드다.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해졌다. 직장인 한선형(32)씨는 "요즘엔 비슷한 물건이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선택지도 다양해서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포장을 하는 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소비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켓컬리는 지난 9월부터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꾸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시작하고,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실 숲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고객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는 품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산 방식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제품을 찾고 있다"고 했다.

화제의 ITeM

앗, 저번에 왔던 그 손님! 저는 다 기억한다구요

<어휘 UP>

인턴: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행위.

응대: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함.

주주: 주식을 가진 사람

총회: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딥러닝: 사물이나 데이터를 모아 규칙을 찾아내거나 예측하는 기술.

자연어: 일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쓰이는 언어.

발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탑재: 기술이나 기능을 기계에 도입함.

<발문>

1.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자.
2. 내가 AI 로봇을 개발한다면 어떤 기능을 넣어 인간을 돕게 하고 싶은지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반려로봇이 말을 걸어왔다

3 일 오후 2 시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일 때 연노란색 물체가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어린이 탑승용 장난감 자동차 크기만 한 물체는 바퀴 네 개로 스스로 움직였다. 내부에 카메라를 갖춘 채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일정 시간마다 물체 뒷면의 작은 구멍에선 소독약이 뿜어져 나왔다.

한 아이가 “로봇이다”라고 외치며 달려왔다. 물체는 아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스스로 멈췄다. 기자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측면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라고 적혀 있었다. 로봇은 순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맡은 공원 직원인 셈이다.

로봇의 이름은 ‘패트로버(Patrover)’.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나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원은 서울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역으로 승인받아 패트로버가 돌아다닐 수 있었다.

로봇이 점점 우리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로봇 청소기로 집을 청소하고 인공지능(AI) 비서에게 하루 일정을 묻던 수준을 넘어섰다. 홀로 사는 이들에게 ‘반려봇’이 동반자가 되고 식당에선 ‘셰프봇’ ‘바리스타봇’이 늘고 있다.

‘반려봇’ ‘바리스타봇’ 등이 일상 속으로

로봇은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서비스용 로봇이 급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비스용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가정용(43 억 달러), 의료용(36 억 달러), 물류용(10 억 달러) 등의 순으로 크다. 2020 년 기준 의료 로봇(174%), 청소 로봇(95%), 물류 로봇(33%)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가정용 로봇으로는 반려봇이 주목받고 있다. 반려봇 ‘효돌’은 어르신들의 투약 시간에 맞춰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고 말해준다. 정해진 하루 일정을 어르신이 잊지 않게 안내한다.

노인들은 외로운 일상 속에 반려봇과 교감을 느끼기도 한다. 학계에선 특히 치매환자들이 로봇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로봇을 반려동물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설명한다. 반려봇이 일찍이 확산된 일본에선 로봇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로봇 주인이 ‘로봇 장례식’을 치러주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다.

도심에선 로봇이 단순한 서빙 외에 직접 요리를 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볼 수 있다.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라운지랩'이 문을 연 카페 '라운지엑스'에선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내린다.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담당하는 로봇도 있다.

일상뿐만 아니라 전쟁 등 특수 상황에서도 로봇이 쓸쓸한 역할을 한다. 사람을 투입하기 위험하고 난해한 작전에 로봇이 투입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업들과 함께 2027년까지 개미나 벌을 닮은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을 국내 기술로 본격 개발한다. 288억 1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곤충 로봇들이 무리를 지어 목표물을 공격하는 군집 방식도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로봇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은 2017년 245억 달러에서 2020년 444억 달러로 큰 것으로 추산된다. 3년 만에 81.2% 성장한 셈이다. 로봇시장은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연평균 32%씩 성장해 2025년에는 1772억 달러까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로봇산업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산업을 합친 규모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패트로버를 제작한 도구공간의 김진호 대표(38)는 "패트로버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높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며 "'1인 1스마트폰'이 보편화됐듯 앞으로 '1인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 vs "새 일자리 만든다"

최근 로봇산업은 주요 선진국의 뿌리 깊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인구가 부족해지니 로봇이 일을 대신한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생활이 확산한 점도 한몫했다. 사람들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점포와 무인공장 등이 늘면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로봇산업을 점찍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의 유명 로봇 제조사였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원에 인수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2020년 향후 3년간 로봇과 AI 등 미래 기술산업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선 높은 가격대가 대중화의 장애물로 꼽힌다. 진화된 기술이 적용될수록 생산비가 높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아마존의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는 '부자 장난감'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스트로 판매가는 1000달러(약 122만 원)부터 시작된다.

로봇 사용의 공감대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선 로봇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두고 논쟁이 팽팽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로봇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당 로봇 1대가 늘어난 지역에선 제조업 구인 인원 증가율이 2.9%포인트 감소했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로봇과 노동의 대체성은 로봇기술이 발전할수록 강화될 것"이라며 "직업훈련 확대, 재교육 등 근로자 업무처리 능력을 높여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로봇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반론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험한 산불 현장에 로봇이 투입되면 화재 로봇 서비스업이라는 기존에 없던 일자리가 무궁무진 생겨난다"며 "단순 업무는 로봇에 맡기는 대신 생산성이 높은 일에 인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인 회사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여유까지 생긴다"고 분석했다.

"로봇과 인간 공존 방안 마련해야"

이날 공원에서 패트로버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지현 씨(22·여)는 "로봇이 더 꼼꼼히 위험물을 관찰하고 사각지대를 돌아다녀 인간의 취약점을 보완하니 안심이다"며 "위험한 사람이 공원에 나타났을 때 사람은 겁을 먹을 수 있어도 로봇은 그렇지 않으니 위기 대처 능력도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사생활 침해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한 시민도 있었다. 대학생 임태희 씨(24·여)는 "로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촬영할 수 있고,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 논란

처럼 해킹이 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근처에 사는 주민 남현숙 씨(65·여)는 “은퇴한 노인분들이 경비원 일을 많이 하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몸집이 커진 로봇시장에 걸맞게 제도도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내놨지만 로봇의 경우 2007년 윤리헌장 초안이 도출된 후 큰 논의가 없다.

한재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의 권리 수준을 반려동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할지, 로봇으로 부가가치가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지 등 큰 틀을 정하는 사회적 숙고 과정이 마련돼야 세부 규정도 만들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이 2017년 ‘로봇시민법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듯 한국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 때”라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2022-03-12]